

宜寧 全義李氏墓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박필순[†] · 박윤미* · 정복남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 인제대학교*

The Excavated Costume of Jeon-Ui Lee Unearthed in Ue-Ryong

Fil-Soon Park[†], Yoon-Mee Park* and Bok-Nam Je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Je University*

(2004. 10. 13. 접수 : 2005. 1. 14. 채택)

Abstract

Three Jang-Ue's and eleven drapery were investigated in the excavated costume in Ue-Ryeong, Gyeong-Sang-Nam-Do. Three Jang-Ue's have three different colors. The length, the width, and the wide of quilting are different as well. The outer collar of a coat is a double collar while the inturned collar is a single collar. In case of Dark blue and Pink Jang-Ue, The large section of cloth forming the body of a Korean coat is getting narrower while the reinforcing cloth strip is getting wider as the time is passing by. All the three Jang-Ue's have the different handling methods of a attached to the top border of a Korean coat, and Pink Jang-Ue doesn't have a attached to the top border of a Korean coat. The handling method of the hemline are all different. And the handling method of the cuffs are all different. The silk is main in the woven goods, partly hemp, mixed fabrics and cotton. Especially complex gauze with supplementary wefts that were found unusually in Cho-Sun Dynasty are very import to study the complex gauze. The fond relics of the Jeon-Ui Lee family reveal various formational methods and specific characters of the excavated costume. There fore these that bring the Jang-Ue shape and the textile's feature in Gyeong-Sang-Nam-Do region, from 16th to 17th are very valuable.

Key words: Complex gauze(운분라),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Jang-Ue(상외), mixed fabrics(교직물).

I. 서 론

출토복식(出土服飾)은 분묘 이장시 관내(官內)에서 시진과 함께 발견되는 복식류의 의미로 시진이 착용하고 있던 수의(壽衣)와 관의 내부를 채우기 위해 넣은 보공복식(補空服飾)으로 구별된다. 출토복식(出土服飾)은 후손들의 족보 등에 의해 시대 추정이 가능하며 정확한 시대성과 지역성을 지닌 실물자료

로서 의복의 재질과 색상은 물론 형태 및 구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의령(宜寧) 전의이씨(全義李氏: 1570 ~ 1647년)의 출토 복식은 2001년 10월 경상남도 의령박물관을 통하여 인수되었다. 전의이씨는 전라남도 해남(海南)에서 현감(縣監)을 지낸 박서휘(朴瑞輝)의 부인으로 유물은 분증에서 묘를 이상하다가 발견되었다. 인수 당시 출토된지 이미 3년이 지난 상태로 분증에서 출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종이상자에 넣어서 창고 안

[†] 교신저자 E-mail : filsooni@hanmail.net

에서 방치되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착장상태나 정확한 유물의 수는 알 수 없었으나 문중어른의 증언에 의하면 명정에는 붉은 글씨로 ‘淑人李義李氏之構’라는 목서가 적혀 있었으며 시신의 위에는 6벌 이상의 옷이 입혀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급하게 이장 작업을 하느라 의복의 대부분은 파손되었으나 그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복과 직물 몇 점을 수습하여 남겨두었다고 한다. 수습된 유물로는 아청색, 분홍색, 진갈색의 장의(長衣) 3점, 명정, 보공용 직물 9점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직물 1점이었다. 모든 유물은 혼합가스(M.B 86%+E.O 14%)에 의한 피복훈증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였고, 宜寧 全義李氏 出土服飾의 세척방법에 관한 연구¹⁾의 실험결과에 의하여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법에 의해 세척을 하였다.

본 유물은 생물연대가 정확하여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중기까지 사용되었던 장의와 직물의 형태 및 특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실물자료이다.

연구방법은 장의의 조형적 특성과 직물의 특성을 분류해서 장의의 치수와 구성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직물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치수와 구성법은 실물자료와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직물은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으나 정확한 판별을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편광현미경(Polarizing Optical Microscope)으로 측면과 단면을 관찰하여 직물의 종류를 구별하였다. 직물의 밀도·조직·실의 꼬임과 방향 등은 실체현미경(Stereo Microscope)을 사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직물의 밀도와 실의 직경은 Image Processing Software인 Matrox Inspector ver. 3.0을 사용하여 10회 이상 측정된 것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Lab 값은 색차계(TC-8600)를 사용하여 10회 이상 측정된 것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II. 출토 장의의 조형적 특성

장의는 조선조 전반에 걸쳐 여러 계층에서 다양

한 용도로 착용되었던 포제(袍制)로 깃모양이 목판 깃이고 옷깃과 옷고름, 겨드랑이에 정사각형 무가이색(異色)으로 되어 있으며, 소매 끝에 거들지가 있는 포(袍)를 지칭한다. 원래는 서민 부녀들이 착용하였으나 조선 말 왕가의 유물 가운데도 장옷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음을 짐작케 하며 제주도에서는 여성의 혼례복에 쓰거나 장례 때 수의(壽衣)용으로도 사용하였다.

조선 초·중기에 장의는 쓰개류가 아닌 편복포(便服袍)였으며, 선조비 염습의대(殮襲衣帶) 중에도 습, 누비, 겹옷 등 계절별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인의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

염습의(殮襲衣)로 기록된 장의의 색은 분홍·보라·초록·두록·옥·남·토황·흑색 등 여러 가지인데 조선 말기 내외용 쓰개로 사용된 장의는 주로 초록색이며, 안은 흰색이다. 수구(袖口)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았고 깃은 좌우 대칭이며 동정이 달려 있다.

최근 출토유물을 보면 장의가 남자들이 착용했던 다른 포제(袍制)와 함께 하나의 독립된 포제로 출토되고 있고 문헌에도 장의에 대한 기록이 있어 장의가 조선시대 남자들이 입었던 포제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³⁾

여자 장의의 형태는 남자의 것과 같으나 재질이 나 색상에서 더 화려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남녀내외법(男女內外法)이 엄격해짐에 따라 초록색 명주(明紬)에 대금(大禁)형태를 이루면서 쓰개로 용도가 변모되었다.

1. 아청색 습누비장의

1) 아청색 습누비장의 치수

JL-1의 뒷길이는 128cm이고 뒤폭은 50cm, 화장은 80cm이다. 출토된 세 점의 장의 중 길이는 가장 길었으나 뒤폭은 가장 좁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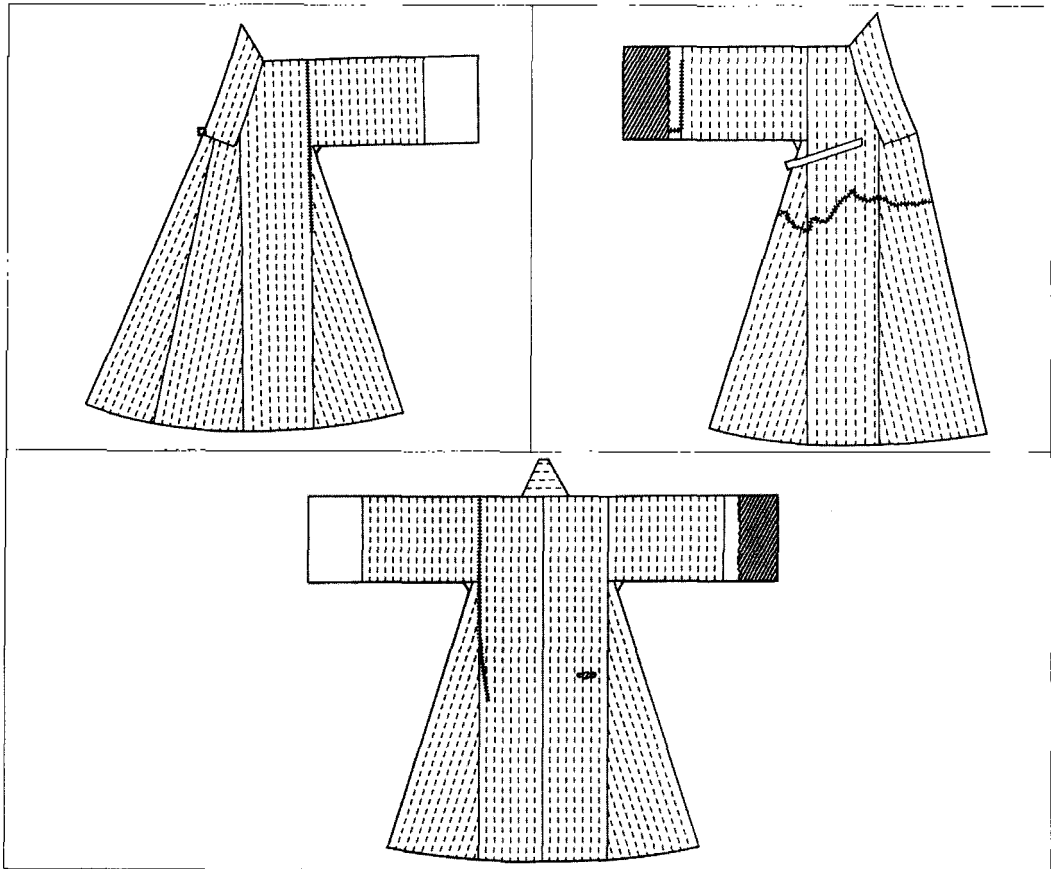
진동은 34cm, 수구의 길이는 31.5cm, 거들지의 넓이는 19cm로 소매의 형태가 통수형이다.

실의 형태는 안실은 단일실으로 밑부분의 너비는

1) 박윤미, 황은경, 정복남, “宜寧 全義李氏 出土服飾의 세척방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6호 (2003), pp. 956-966.

2) 박성실, *의식주 생활*,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4), p. 325.

3) 이주영, “조선시대 남자 장의(長衣)제도,” 전통복식 2 (서울: 경춘사, 2000), p. 59.



〈그림 1〉 아청색 솜누비장의 실측도.

36cm이고 걸쇠는 이중섀프로 60cm(35cm/25cm)로 구성되어 있다. 안부자락 너비는 31cm이고 걸부자락 너비는 31.8cm이다.

걸감과 안감은 모두 명주이고 거들지는 안감과 동일한 명주로 되어 있다. 옆선에 연결된 정사각형 무는 4.5×4.5cm로 문양이 새겨져 있다.

깃은 목판깃으로 깃너비는 12cm, 길이는 87.5cm, 고대너비는 18cm이다. 고름의 너비는 걸고름, 안고름 모두 3cm이고, 고름의 길이는 파손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2) 아청색 솜누비장의 구성법

견웃으로 홈질을 사용하였다. 걸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고 누빈 것으로 누비의 간격은 3.5cm이고 땀수는 1cm안에 5땀이 들어있다.

등줄기의 방향은 입에서 오른쪽이고 바늘땀의 간격은 0.5cm이다. 앞뒤 길을 이어서 좌우 1장씩 재단하여 뒤 중심선에서 홈질을 하였다. 안감도 걸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걸감과 안감을 박았다.

(1) 깃,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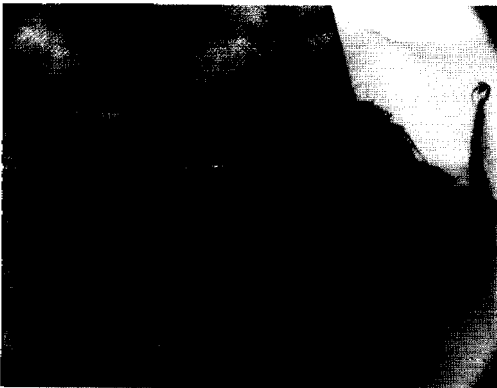
깃은 고대부분에서 바느질되어져 깃머리 부분은 걸감위에서 홈질로 덧대어져 있고 〈그림 2〉에서와 같이 45cm 정도 길이에 1cm 간격의 시침걸로 보아 동정이 달린 흔적으로 보인다. 깃의 안쪽에는 콩크리기로 고정되어 있다. (그림 3)

(2) 섶

깃과 섶의 연결은 홈질을 하였고 그 위에서 다시 감침질을 하여 연결되어 있다. 섶과 섶은 서로 홈질



〈그림 2〉 JL-1 동정이 달린 흔적(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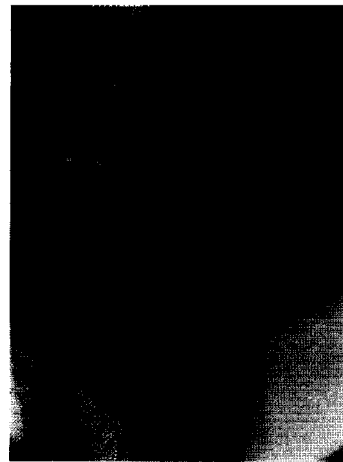
〈그림 3〉 JL-1 겉깃(안).

로만 연결되어 있다. 울의 방향은 겉섀, 안섀 모두 바깥쪽 가장자리 선이 식서방향이고 시점은 길쪽으로 향하고 있다.

(3) 소매



〈그림 4〉 소매와 거들지 연결방법(겉).



〈그림 5〉 JL-1 수구 처리방법(겉).

〈그림 4〉의 소매와 거들지는 홈질로 연결되어 있고 시점의 방향은 길쪽으로 되어 있다. 수구의 처리 방법은 안감 쪽에서 1cm 정도 길게 해서 겉감 쪽에서 1cm 접어서 1cm 간격의 공그르기로 처리되어 있다. (그림 5) 배래의 시점방향은 뒤쪽으로 향하고 있다.

(4) 정사각형 무

정사각형 무는 소매와 옆선의 사다리꼴 무가 접한 겨드랑이 부분에 다시 작은 정사각형의 무가 달려 있다. 겉길쪽과 안길쪽의 문양이 서로 다른 것으로 겉길쪽의 문양은 두 개의 원단이 연결되어 있고, 시점은 길쪽으로 향해 있다. 길의 겉감과 안감, 겉무와 안무 4장을 먼저 홈질로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겉무와 안무를 서로 고정시키기 위해 홈질을 하고 안감쪽에서 다시 0.3~0.5cm 간격의 감침질로 고정을 시켰다. (그림 6, 7)

(5) 고름

JL-1의 고름의 바느질은 다른 두 점의 장의와 바느질법이 차이가 있는데 홈질을 한 뒤 그 위에 다시 상침을 하였다. 〈그림 8〉을 보면 0.1cm의 세뿔상침이 0.5cm 간격으로 바느질되어 있다. 이러한 바느질 기법은 경주이씨⁴⁾ 문단검장의의 겉깃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겉고름은 겉깃과 섀에 걸쳐져 놓여 있고, 안고름은 깃에서 일직선으로 7cm 나간 자리에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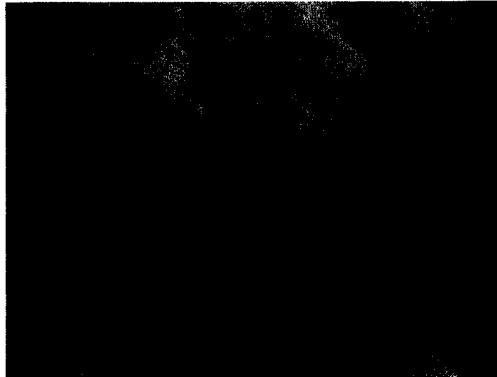
4) 권영숙, "조선 초·중기 여자(女子) 장의 제도," 권통복식 2 (서울: 경춘사, 2000), p. 50.



<그림 6> JL-1 걸길 결무(겉).



<그림 9> 걸길 밑단 처리방법(안).



<그림 7> JL-1 걸길 결무(안).



<그림 10> 안길 밑단 처리방법(안).



<그림 8> JL-1 고름(겉).

려 있다. 걸고름의 박음선은 위쪽이고 안고름의 박음선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6) 밑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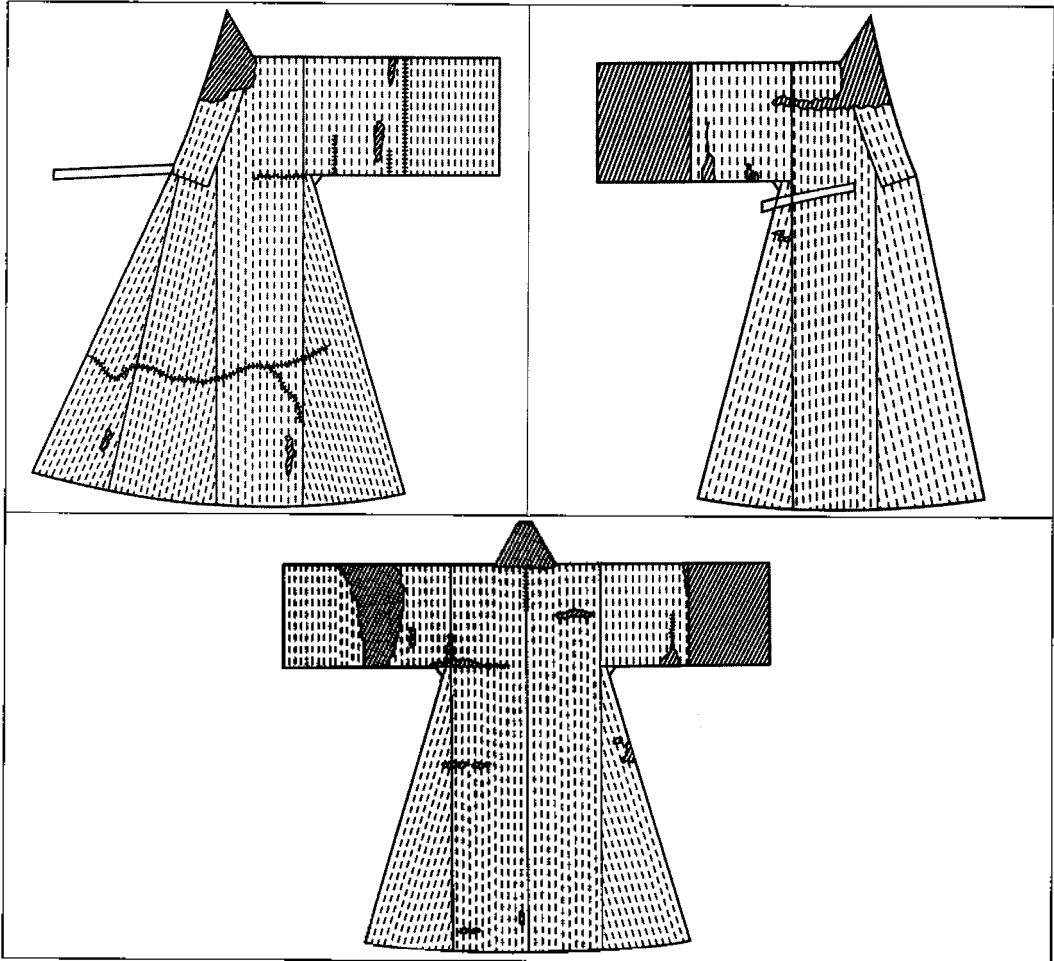
밑단은 걸감을 약 1cm 정도 접어 올려 0.5cm 간격으로 감침질로 처리되어 있다. 걸감을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밑단에서 보이는 실의 흔적은 걸감과 안감을 서로 고정시키고 단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시침질로 고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10)

2. 분홍색 솜누비장의

1) 분홍색 솜누비장의 치수

JL-2의 뒷길이는 118cm이고 뒤폭은 52cm, 화장은 68cm이다. 출토된 세 점의 장의 중 길이와 화장이 가장 짧았다.

전동은 32cm, 수구의 길이는 31cm, 거들지의 넓이는 21cm로 나머지 두 점의 거들지보다 넓이가 2cm 정도 넓었다. 소매의 형태가 통수형이다.



〈그림 11〉 분홍색 솜누비장의 실측도.

솜의 형태는 안솜은 단일솜으로 28.5cm이고 겹솜은 이중솜인데 파손으로 인하여 계측이 불가능하였다. 안무자락 나비는 26cm이고 겹무자락나비는 역시 파손으로 인하여 계측이 불가능하나 세 점의 장의 중 부의 넓이가 가장 좁았다.

겹감은 명주이고 안감은 마직물, 거들지는 겹감과 동일한 명주로 되어 있다. 옆선에 연결된 마름모꼴형의 겹무는 3×3.5cm이다. 역시 다른 두 점에 비해 작은 겹무가 달려 있다.

깃은 목판깃으로 깃나비는 10cm이고 깃길이와 고대나비는 파손으로 인하여 계측이 불가능하였다. 고름의 너비는 겹고름, 안고름 모두 2.5cm이고, 고름의 길이는 겹고름이 33.5cm, 안고름이 26.5cm로 되어 있다.

2) 분홍색 솜누비장의 구성법

겹솜으로 홉질을 사용하였다.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고 누빈 것으로 누비의 간격은 2cm이고 땀수는 1cm안에 4땀이 들어있다.

등솜기의 방향은 입어서 오른쪽이고 바늘땀의 간격은 0.5cm이다. 바느질 방법은 JL-1과 동일하게 앞뒤 길을 이어서 좌우 1장씩 재단하여 뒤 중심선에서 홉질을 하였다. 안감도 겹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겹감과 안감을 박았다.

(1) 깃, 등정

깃부분이 파손되어 깃길이와 고대의 형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등정이 달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2)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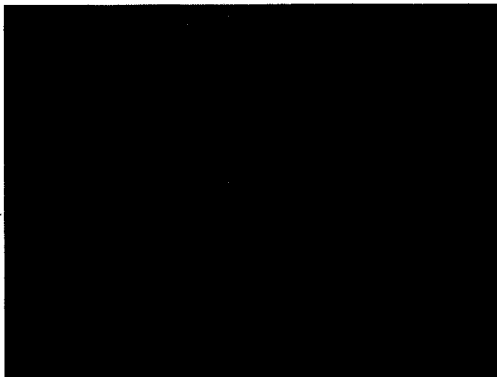
길과 설의 연결도 JL-1과 동일하게 홈질을 하였고 그 위에서 다시 감침질을 하여 연결되어 있다. 설과 설은 서로 홈질로만 연결되어 있다. 을의 방향은 걸설, 안설 모두 바깥쪽 가장자리 선이 식서방향이고 시점은 길쪽으로 향하고 있다. JL-1과 JL-3과는 달리 설을 걸감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하였고, 걸감과 안감의 연결은 걸감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해서 바이어스 처리하여 안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고정시켰다.

(3)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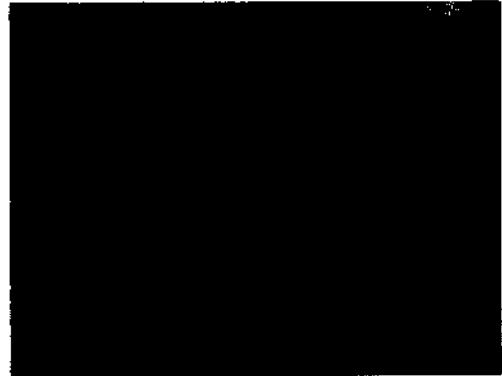
소매와 거들지의 연결방법도 JL-1과 동일하게 홈질로 연결되어 있고 시점의 방향도 역시 길쪽으로 향해 있다. <그림 12>는 수구의 처리방법으로 걸감을 2cm 접어서 공그르기로 처리하였다. JL-1과는 반대로 되어 있다. 배래의 시점방향은 뒤쪽으로 향해 있다.

(4) 정사각형 무

JL-2는 걸감과 동일한 원단으로 결부가 달려있는데 <그림 13>에서와 같이 길의 걸감과 안감, 결무의 걸감, 결무의 안감 4장을 안쪽에서 홈질을 하여 서로 연결시켰다. 그 위에 걸감과 안감을 홈질로 고정시켰다. 시점은 길쪽으로 향해 있다. <그림 14>는 안감이 마로 되어 있어 손상된 정도가 심하여 결무와 안무의 연결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림 12> JL-2 거들지(안).



<그림 13> JL-2 걸깃 결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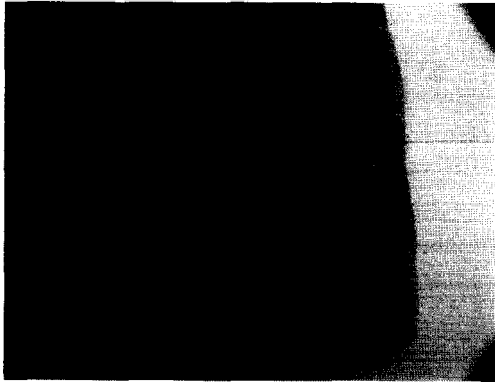
<그림 14> JL-2 걸깃 결무(안).

(5) 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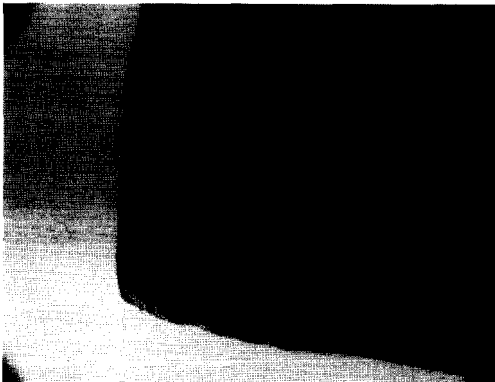
JL-2의 고름을 소매 쪽으로 향하게 놓고 홈질을 한 뒤 다시 반대쪽으로 꺾어서 그 위에 다시 홈질을 하였다. 고름의 위치는 JL-1과 동일하게 걸고름은 걸깃과 설에 걸쳐져 놓여 있고, 안고름은 것에서 일직선으로 7cm 나간 자리에 달려 있다. 걸고름의 박음선은 아래쪽이고 안고름의 박음선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고름이 달려 위치는 JL-1과 동일하나 박음선의 위치는 반대로 되어 있다.

(6) 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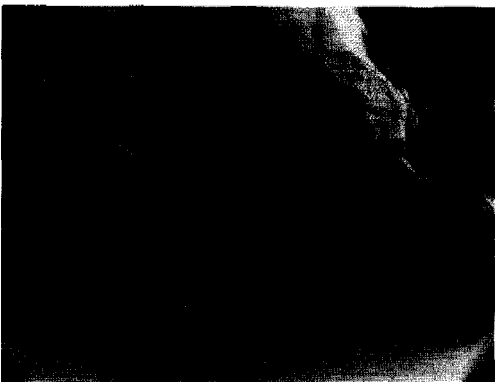
밑단의 경우 JL-1의 경우에는 걸감을 그대로 접어 올려 안쪽에서 감침질하였고, JL-2의 경우에는 <그림 15~17>과 같이 걸감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해서 바이어스 처리하여 안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고정시켰다.



〈그림 15〉 길쭉 밀단 처리방법(안).



〈그림 16〉 안길 밀단 처리방법(안).



〈그림 17〉 밀단 처리방법(안).

3. 진갈색 솜누비장의

1) 진갈색 솜누비장의 치수

JL-3의 뒷길이는 125cm이고 뒷폭은 63cm. 화상은

84cm이다. 출도된 세 점의 상의 중 폭이 가장 넓었으며 화상의 길이도 가장 길었다.

진동은 36cm, 수구의 길이는 32cm, 거들지의 넓이는 19cm로 소매의 형태가 역시 통수형이다.

설표의 형태는 안설표는 파손이 심하여 고찰이 불가능하며 설표는 이중설표로 52cm(23/29cm)이다. 안부자라 나비는 고찰이 불가능하고 걸무자라나비는 44.5cm로 세 점의 상의 중 부의 넓이가 가장 넓었다.

옆선에 연결된 정사각형 무는 4.5×4.5cm이다.

깃은 복판깃으로 깃나비는 11cm이고 깃길이 100cm, 코대나비는 8cm이다. 그 위에 고름과 동일한 명주로 동정이 달려 있는데 너비는 7cm이고 길이는 56cm이다. 고름의 너비는 겹고름이 2.8cm, 안고름 모두 2.4cm이고, 고름의 길이는 겹고름, 안고름 모두 29cm로 되어 있다.

2) 진갈색 솜누비장의 구성법

겉옷으로 홉질을 사용하였다. JL-1과 JL-2와 같은 방법으로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고 누빈 것으로 누비의 간격은 8cm이고 땀수는 1cm안에 5땀이 들어 있다. 세 점의 장의 중 솜의 두께가 가장 두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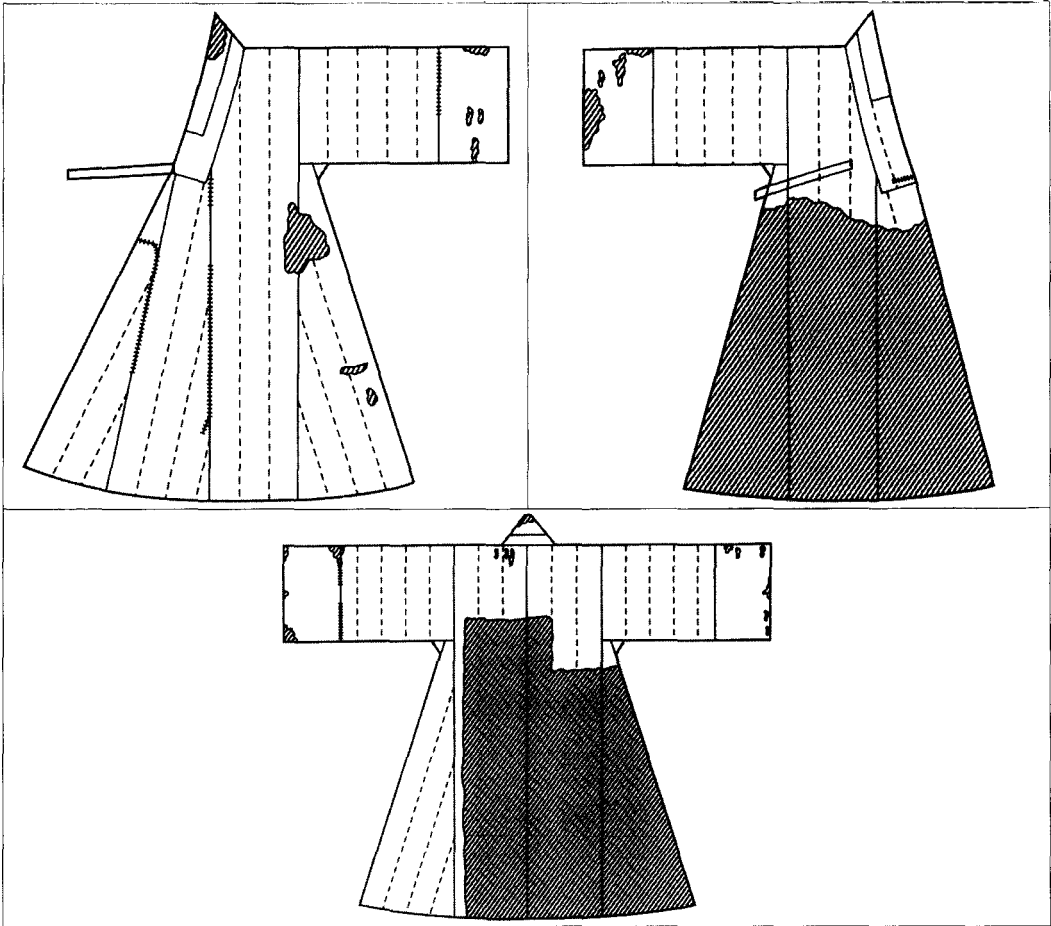
등숱기의 방향은 입어서 오른쪽이고 바늘땀의 간격은 0.3cm이다. 바느질 방법은 역시 JL-1과 JL-2와 동일하게 앞뒤 길을 이어서 좌우 1쌍씩 재단하여 뒤중심선에서 홉질을 하였다. 안감도 겹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겹감과 안감을 바왔다.

(1) 깃, 동정

JL-3의 깃의 바느질은 JL-1과 동일하게 겹감위에서 홉질로 넷대어져 되어 있고, 〈그림 19〉와 같이 그 위에 고름과 동일한 원단의 동정이 1cm 간격의 공그르기로 달려 있다.

(2) 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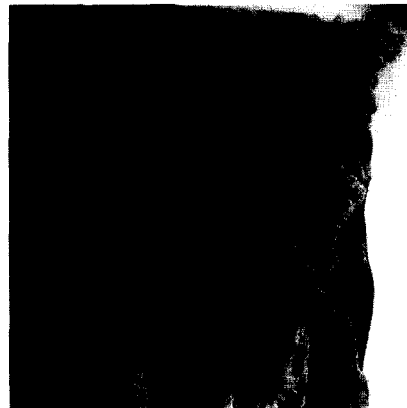
깃과 설표의 연결도 JL-1, JL-2와 동일하게 홉질을 하여 그 위에서 다시 간침질을 하여 연결되어 있다. 설표와 설표는 서로 홉질로만 연결되어 있다. 울의 방향은 겹설표, 안설표 모두 바깥쪽 가장자리 선이 시서방향이고 시점은 길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 18> 전갈새 술포복장의 실측도.



<그림 19> JL-3 동정(겉).



<그림 20> JL-3 거들지(겉).

(3) 소매

소매와 거들지는 홈질로 연결되어 있고 시접의

방향은 역시 길쪽으로 되어 있다.(그림 20) 수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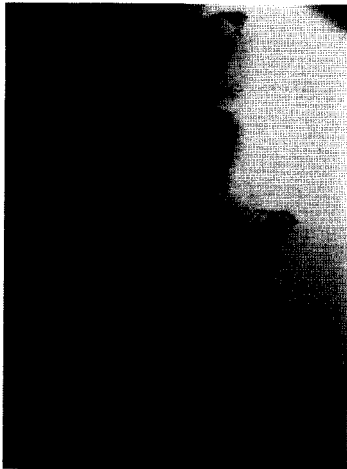
처리방법은 따로 시점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걸감, 숨, 교직(면과 견을 섞어서 짠 직물), 안감의 4겹을 <그림 21>과 같이 큰 시침질로 등성등성 연결하였다.

(4) 정사각형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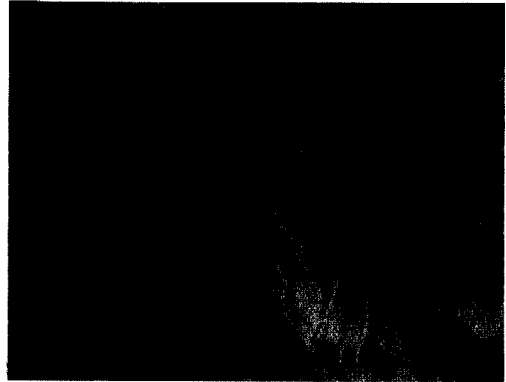
<그림 22>는 JL-2와 같이 걸감과 동일한 원단으로 결무가 달려 있는데 걸감과 안감을 안쪽에서 홈질을 하여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 시점은 길쪽으로 향해 있다. 그러나 <그림 23>의 안쪽을 보면 JL-1과는 바느질의 차이가 약간 보이는데 길쪽으로 약간 들어가 공그르기로 처리하였다.

(5) 고름

JL-3은 JL-2와 동일한 바느질기법으로 달려 있다.



<그림 21> JL-3 저들지(안).



<그림 23> JL-3 걸길 결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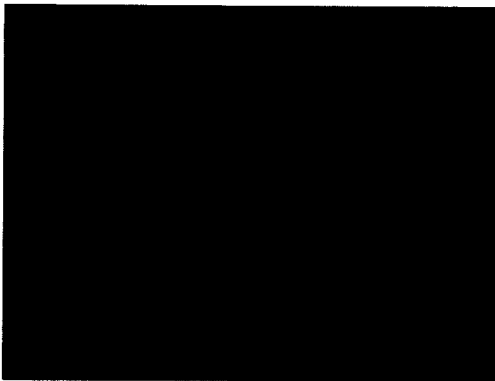
그러나 고름의 위치는 JL-1과 JL-2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걸고름은 걸깃과 섞여 걸쳐져 놓여 있고, 안고름은 깃에서 일직선으로 7cm 나간 자리에서 약 9cm 올라간 위치에 달려 있다. 걸고름, 안고름 모두 박음선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6) 밑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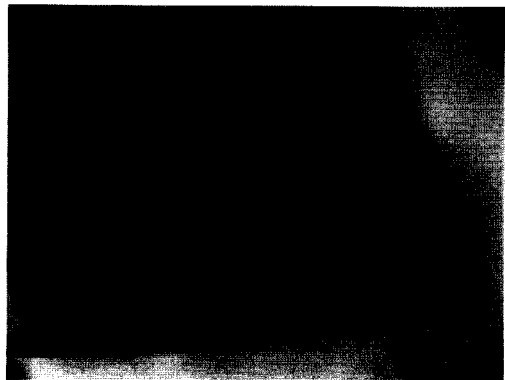
밑단의 처리방법은 걸과 안감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단까지 맞추어서 홈질로 바느질하여 창구명을 이용하여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이상과 같이 전의이씨묘에서 출토된 장의를 종합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습된 장의는 모두 세 점으로 색상, 길이와 품 등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색상은 아청색, 분홍색, 진갈색이며 사용된 직물의 종류는 견, 마, 면, 사면교직 등이 조사되었다.



<그림 22> JL-3 걸길 결무(겉).



<그림 24> JL-3 걸길 밑단.

JL-1(아청색솜누비장의)은 세 점의 장의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섯자락의 나비가 넓었다. JL-2(분홍색솜누비장의)는 다른 두 점에 비해 길이와 뒤폭이 짧고, 화장의 길이도 짧아 몸에 맞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JL-3(진갈색솜누비장의)는 뒤폭이 가장 넓었고, 포폭, 무자락 나비도 세 점 중 가장 넓었으며, 화장의 길이도 가장 길었다. 세 점의 장의는 길이와 무, 섯자락의 넓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아청색 장의와 분홍색 장의는 진갈색 장의에 비해 길자락이 좁아지고 무자락과 섯자락은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안선의 구성법을 살펴보면 두 점은 단일선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러나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의 경우에는 안선부분의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판별은 힘들었으나 단일선으로 추정된다. 이는 1600년대의 유물인 일선문씨⁵⁾의 소재면포검장옷, 동래정씨⁶⁾의 명주누비장의, 파평윤씨⁷⁾의 명주누비장의, 진주하씨⁸⁾의 무명검장의, 여흥박씨⁹⁾의 봉황문단장의, 경주이씨¹⁰⁾의 무명솜장의 등과 동일한 결선은 이중선이고 안선은 단일선이다. 이 시기의 유물들은 1700년대 후반의 결선과 안선이 이중선의 대금형태로 변화되기 전의 유물로 단일선과 이중선이 공존하는 시기¹¹⁾의 유물들이다.

세 점 모두 누비의 간격도 달랐다. 특히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은 누비의 간격이 8cm로 장기정씨¹²⁾의 명주 누비 솜장옷(6cm), 양천허씨¹³⁾의 직령포(7cm)보다도 누비의 간격이 넓었는데, 이와 같이 누비간격이 넓은 것은 주로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길과 거들지의 연결방법은 세 점 모두 동일하나 수구의 처리방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JL-1(아청색솜누비장의)는 걸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처리하였으며, 분홍색 장의는 반대로 안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로 처리하여 마무리 하였다. JL-3(진갈색솜누비장의)는 따로 시접처리를 하지 않고 걸감, 솜, 교직, 안감의 4점을 큰 시침질로 등성등성 고정시켰다.

동정의 경우에는 진갈색 장의에만 동정이 달려 있으며, 아청색 장의는 동정이 달린 흔적만 보인다. 또한 무, 밑단의 바느질법, 고름의 달린 위치, 크기, 그리고 박음선의 방향 등에서 모두 다른 구성법이 조사되었다. 공통점으로는 안고름의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포항 내단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¹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의이씨 묘에서 출토된 장의는 세 점에 불과하나 다양한 재질, 크기와 구성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1600년대의 장의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Ⅲ. 출토 직물의 특성

1. JL-1 장의

JL-1 장의의 앞길, 뒤길과 깃은 모두 아청색의 주(紬)를 사용하였는데 밀도는 27×27올/cm 정도이다. 직조에 사용된 경사는 굵기가 불규칙하여 0.62 ~ 0.28mm 까지 차이가 나나 위사는 경사에 비해 비교적 일정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였다. (그림 25) 장의의 구성에서 앞길과 뒤길 모두 옷감을 잘라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물의 폭은 측정할 수가 없었으나 31.5c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장의의 안감과 거들지에는 걸감과 동일한 종류의 주가 사용되었다. (그림 26) 안길의 결무(그림 27~28)에는 5매3뿔 수자적으로 짜진 연화칠보문단(蓮花七寶紋緞)이 사용되었다. 걸길의 결무(그림 29)는 작은 직사각형의 2 조각을 이어서 사용하였으나 모두 5매3뿔의 수자적으로 작은 꽃문양을 표현한 소화문단(小花紋緞)이다. 안감

5)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택묘 발굴조사*, (경북: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p. 236.

6)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6), p. 358.

7) 권영숙, *Op. cit.*, p. 15.

8) 건들바우박물관, *진주하씨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대구: 건들바우박물관 출판부, 1991).

9) 문화재관리국, *복식보존처리보고서* (1994).

10) 권영숙, *Op. cit.*, p. 15.

11) 박필순, “여자 袍에 관한 研究 -朝鮮時代 長衣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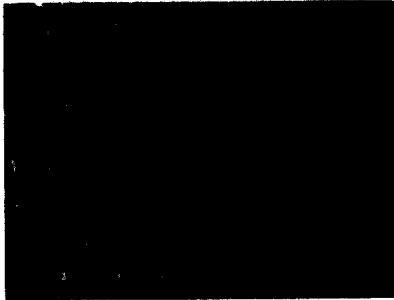
12) 안동대학교 박물관,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북: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p. 135.

13) 단국대 민속박물관, *한국복식 제6호*, (서울: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88),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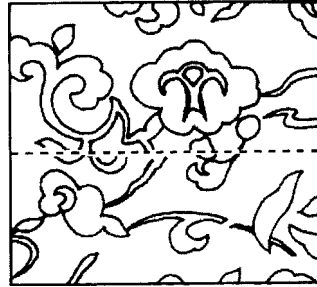
14) 안동대학교 박물관, *Op. cit.*, p. 135.

〈표 1〉 출토 상의의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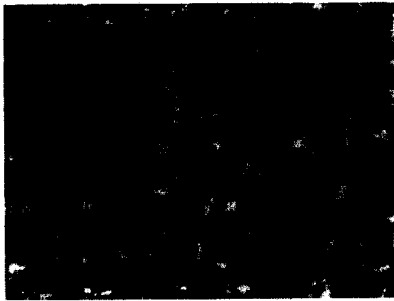
유분명	JL-1			JL-2			JL-3			
년대구분	1570~1647년									
출토지	경남 의령군									
명칭	아청색 솜누비장의			분홍색 솜누비장의			진갈색 솜누비장의			
흡습양식	솜누비			솜누비			솜누비			
재질(약감)	명주(명주)			명주(따)			명주(교직/명주)			
색상	아청색			분홍색			진갈색			
Lab값	L	a	b	L	a	b	L	a	b	
	16.5	1.12	-3.94	49.89	8.8	19.39	29.58	4.9	12.13	
치수	옷길이	128			118			125		
	뒤폭	50			52			63		
	포폭	22			21.5			25		
	화장	80			68			84		
	신동	34			32			36		
	수구	31.5			31			32		
	거늘지넓이	19			21			19		
	겉무자락나비	31.8			계측불가			44.5		
	겉길자락나비	28			세측불가			25		
	겉실자락나비	60(35/25.5)			계측불가			52(23/29)		
	안무지탁나비	31			26			계측불가		
	안길자락나비	26			23.5			계측불가		
	안실자락나비	36			28.5			계측불가		
	마름모꼴 결무	4.5×4.5			3×3.5			4.5×4.5		
	고대나비	18			10			18		
갓나비	12			계측불가			11(7)			
깃길이	87.5			계측불가			100(56)			
고름	겉고름길이	계측불가			33.5			29		
	겉고름나비	3.5			2.5			2.4		
	안고름길이	계측불가			26.5			29		
	안고름나비	3.5			2.5			2.8		
실	겉실	이중실			이중실			이중실		
	안실	단일실			단일실			교찰불가		
누비	누비간격	3.5cm			2cm			8cm		
	땀수	1cm/5땀			1cm/4땀			1cm/5땀		



〈그림 25〉 JL-1 겹감(紬 × 16).



〈그림 29〉 안길결무 문양.



〈그림 26〉 JL-1 안감(紬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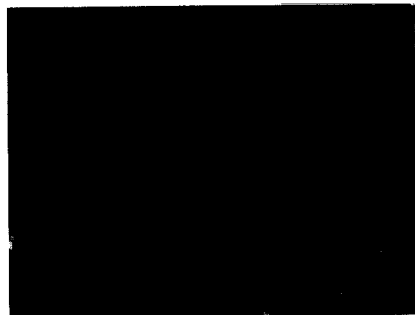
과 결무의 색상은 현재 갈색 계통으로 변해 있으며 본래의 색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JL-2 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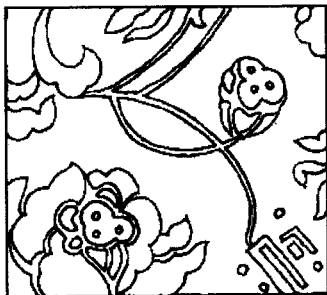
JL-2 장의의 겹감(그림 30)은 분홍색 계통의 주(紬)이나 많이 퇴색하여 거의 옅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직물의 폭은 30cm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안감(그림 31~33)에 사용된 직물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단면과 측면을 관찰한 것을 보면 섬유 단면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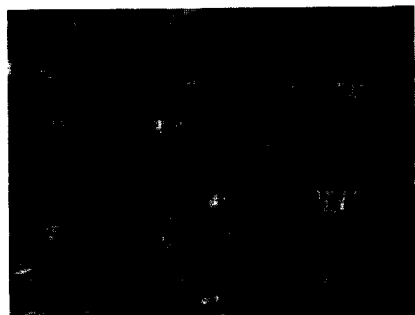
〈그림 27〉 JL-1 안길결무(緞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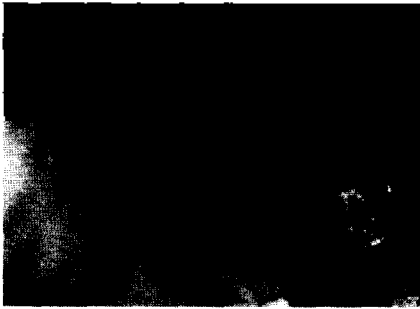
〈그림 30〉 JL-2 겹감(紬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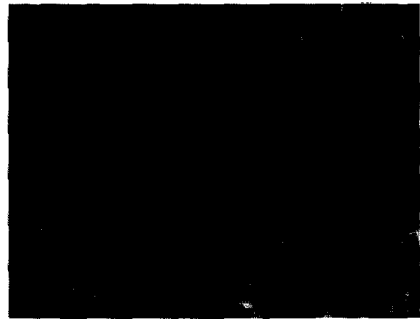
〈그림 28〉 겹길결무 문양.



〈그림 31〉 JL-2 안감(대마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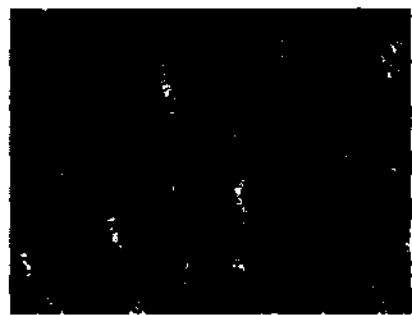
<그림 32> JL-2 안감(단면 ×400).



<그림 34> JL-3 길감(絀 × 16).



<그림 33> JL-2 안감(측면 ×300).



<그림 35> JL-3 안감(사면교직 × 16).

각형이며 측면에는 마디가 있어서 대마저물임이 확인되었으며 물들이지 않은 소색(素色)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군데군데 길감의 색과 같은 분홍색으로 물들여져 있으며 몇 군데에는 선명한 색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길감의 본래 색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안감은 파손이 심하여 포복은 측정할 수 없었다.

3. JL-3 장의

JL-3 장의의 길감(그림 34)은 잔감색의 주(紬)이다. 안감으로는 2종류의 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앞길과 뒤길에는 사면교직(絲綿交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길감과 동일한 주가 사용되었다. 사면교직은 경사부분에는 면을, 위사부분에는 견을 사용하여 직조한 교직물로서 면사는 굵기가 일정치 않았으나 견사는 대체로 굵기가 일정하였다. (그림 35)

장의의 실과 고름에는 안감으로 사용된 열은 갈색의 냉주와 동일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그림 36) 거들지는 모두 3종류의 직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길에서부터 아청색면 → 솜 → 사면교직 → 열은 갈색 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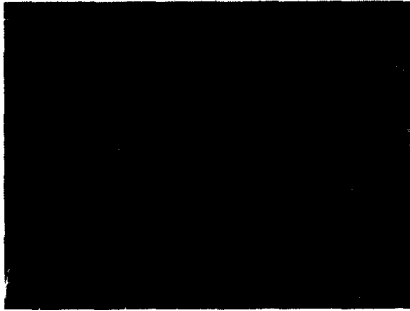


<그림 36> JL-3 안감(견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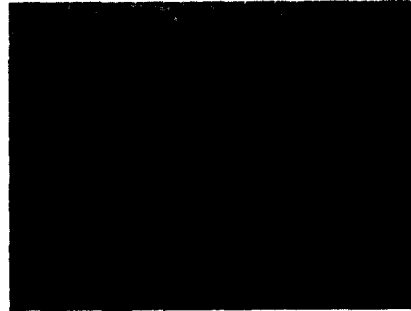
주의 순으로 되어 있다. 장의 길감의 포복은 40cm이나 안감은 파손이 심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 거들지의 가장 바깥부분에 사용된 직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단면과 측면 관찰한 것을 보면 단면에는 중공이 있으며 측면에는 꼬임이 보이므로 면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7~39)

4. JL-4 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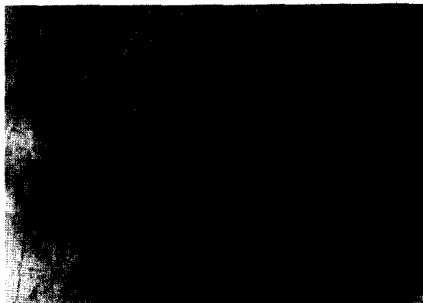
유물번호 JL-4 명정의 직물은 평직의 바닥조직에 4배 능직으로 작은 마름보 형태의 분양을 직조한 직



〈그림 37〉 JL-3 거들지 결(면 × 16).



〈그림 40〉 JL-4 명정의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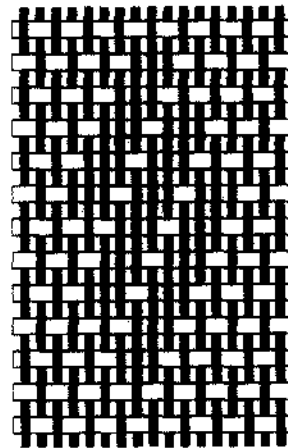
〈그림 38〉 JL-3 거들지 결(단면 × 400).



〈그림 41〉 JL-4(견 × 16).



〈그림 39〉 JL-3 거들지 결(측면 ×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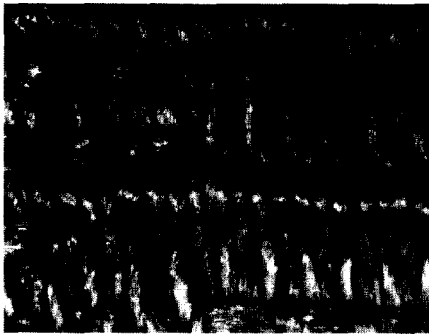
〈그림 42〉 JL-4 조직도.

물로 이 문양들은 수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련한 무연견사를 사용하였으며 밀도는 66×28올/cm이고 직물의 두께는 0.07mm로 전의이씨 출토직물 가운데 가장 얇은 직물이다. (그림 4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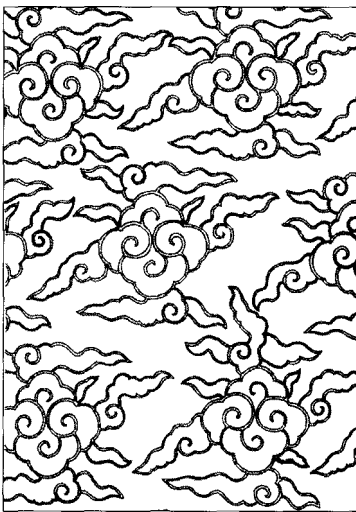
5. JL-5 운문리(雲紋羅)

JL-5는 4경교라의 구조에 위사방향으로 분위사를 삽입하여 치밀하게 직조한 라직물(羅織物)로서 위사의 굵기가 굵으므로 문양부분이 부드러져 보인다. (그림 43~44) 경사에는 강한 Z꼬임이 있으나 위사는

무연사를 사용하였으며, 직물의 두께는 0.32mm로 JL-1 장의의 무에 사용된 수자직의 직물(0.27mm)보다 다소 두껍게 나타났다. 문양은 커다란 단독 운문이 반자(半字)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위분양



〈그림 43〉 JL-5 (羅 × 16).



〈그림 44〉 JL-5의 문양.

의 크기는 21×13.5/cm이다.

이러한 형태로 직조된 4경교라의 직물을 중국에서는 화라(化羅)로 분류하고 있으나¹⁵⁾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4경교라로 제작된 직물로서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의 직물은 수침에 불과하며 밝혀진 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趙敬 : 1541 ~ 1609)의 복식 가운데 답호¹⁾의

속고름¹⁶⁾과 여홍민씨 출토복식 가운데 너울에 사용된 직물¹⁷⁾은 4경교라로 직조된 직물이나 문양이 없는 무문라(無紋羅)이다. 문라(紋羅)로서는 1431년의 불복장직물인 황색의 모란당초문라(牧丹唐草紋羅)와¹⁸⁾ 15 ~ 1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직물인 운보문라(雲寶紋羅)¹⁹⁾, 그리고 동래 정씨(1600년대)의 단령 안감인 운문라(雲紋羅)²⁰⁾가 있다. 동래 정씨의 단령직물의 문양은 운문(雲紋) 가운데서도 단두운문으로 JL-5의 문양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JL-5는 조사할 당시에 〈그림 45〉와 같이 두 장의 천이 서로 0.3 ~ 0.5cm 정도의 바늘땀에 0.3 ~ 0.5cm 간격으로 바느질되어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물의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폭은 알 수 없으나 유물의 상태로 보아 길이는 190cm 이상, 폭은 55cm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남은 부분의 형태는 〈그림 46〉과 같으므로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6. 보공용 직물

보공용으로 사용된 JL-6부터 JL-13까지의 직물은



〈그림 45〉 JL-5 직물의 연결 상태.

15) 趙景, "絲綢藝術史," (浙江美術學院出版社, 1992),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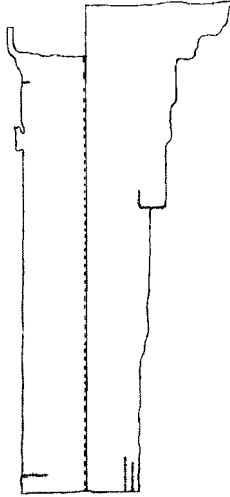
16) 서운역사박물관, "趙敬墓出土遺衣," (2003), pp. 77-78.

17) 조효숙, "동래정씨 흥국공일사 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3), p.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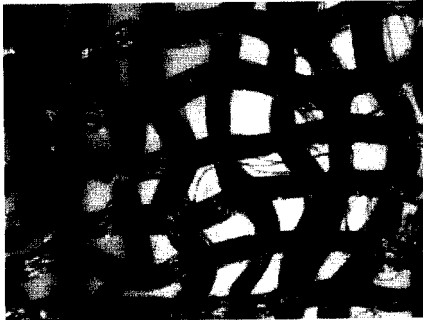
18) 박윤미,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직물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 30, 48.

19) 심연옥,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 p.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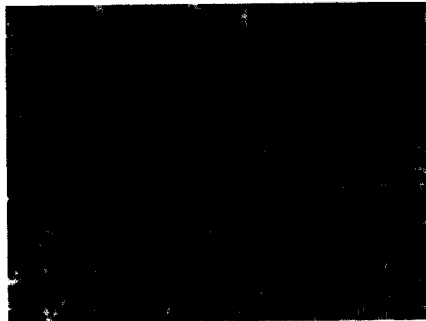
20) 삼주선기념박물관, "朝鮮時代 緞羅(織物)의 무늬," (2001), pp. 12-13.



〈그림 46〉 JL-5의 형태.



〈그림 47〉 JL-8 (× 16).



〈그림 48〉 JL-13 (× 16).

모두 꼬임이 없는 무연사로 제작한 주(紬)로서 정련 건이며 현재의 색상은 갈색을 띠고 있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광택이 많이 난다.

JL-6부터 JL-10까지는 실의 굵기와 배열이 일정치

않은 거친 직물로서 밀도는 20올 이상으로 경사가 위사보다 치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물의 폭은 36.5cm이다. JL-11, JL-12와 JL-13은 비교적 실의 굵기가 일정한 고운 주이며 밀도는 경사 30올, 위사는 36올 이상으로 모두 위사가 경사보다 치밀하다. 직물의 폭은 34.5cm로 JL-6~10까지 비해 다소 좁은 편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01년 10월 경상남도 의령박물관을 통해 인수된 전의이씨 묘의 출토복식 및 직물에 관한 고찰로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의는 아청색(L:16.5, a:1.12, b:3.94), 분홍색(L:49.89, a:8.8, b:19.39), 진갈색(L:29.58, a:4.9, b:12.13)으로 모두 다른 색상이 출토되었고, 길이와 폭도 모두 달랐다. 세 점 모두 결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고 누빈 장의로 누비의 간격도 2cm, 3.5cm, 8cm로 모두 달랐다.
2. 세 점의 장의 모두 결섵은 이중섵이고 안섵은 단일섵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700년대에 결섵과 안섵이 이중섵의 대금형태로 변화되기 전의 형태이다. JL-1(아청색솜누비장의)은 세 점의 장의 중 길이가 가장 길고 섵자락의 나비가 넓었다. JL-2(분홍색솜누비장의)는 다른 두 점에 비해 길이와 뒤폭이 짧고, 화장의 길이도 짧아 몸에 맞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은 뒤폭이 가장 넓었고, 포폭, 무자락 나비도 세 점 중 가장 넓었으며, 화장의 길이도 가장 길었다. 세 점의 장의는 길과 무, 섵자락의 넓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JL-1(아청색솜누비장의)과 JL-2(분홍색솜누비장의)는 JL-3(진갈색솜누비장의)에 비해 길자락이 좁아지고 무자락과 섵자락은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깃의 바느질은 세 점 모두 동일하나 JL-1(아청색솜누비장의)은 동정이 달린 흔적만 남아 있고, JL-2(분홍색솜누비장의)는 동정이 달려 있지 않았으며,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은 동정이 달려 있다.
3. 소매 거들지의 연결방법은 세 점 모두 동일하나 수구의 처리방법은 모두 다르다. JL-1(아청

〈표 2〉 직물의 특성

유물 번호	유물명	용도	직물 종류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홀/cm)	밀도 비	두께 (mm)	포폭 (cm)	크기 (cm)	색상		
					구분	굵기 (mm)	꼬임						L	a	b
JL-1	아청색 장의	겉감	紬	평직	경사	0.21	Z	27	1.0	0.14	31.5 이상		16.5	1.12	3.94
					위사	0.18	없음	27							
		무	緞	5매3위 수자직	경사	0.12	Z	76	2.3	0.27			36.74	-2.73	17.51
					위사	0.24	없음	33							
		안감 거듭시	紵	평직	경사	0.22	없음	32	1.03	0.13			50.72	0.08	24.49
					위사	0.22	없음	31							
고름	紬	평직	경사	0.25	없음	30	1.17	0.18			26.84	2.90	10.00		
			위사	0.23	없음	26									
JL-2	분홍 장의	겉감	紬	평직	경사	0.23	없음	31	1.07	0.14	30 이상		49.89	8.8	19.39
					위사	0.31	없음	29							
		안감	大麻	평직	경사	0.24	없음	22	0.92	0.13			67.59	0.46	9.07
					위사	0.39	없음	24							
JL-3	갈색 장의	겉감	紬	평직	경사	0.20	없음	26	1.04	0.15	40		29.58	4.9	12.13
					위사	0.31	없음	25							
		안감 (앞길더길)	교직 (緋+絹)	평직	경사	0.28	S	20	1.11	0.20			46.0	4.29	20.11
					위사	0.27	없음	18							
		안감(깃, 섶, 고름)	紬	평직	경사	0.20	없음	28	0.7	0.12			40.42	3.41	19.74
					위사	0.18	없음	40							
서름치	絹	평직	경사	0.23	S	23	1.9	0.20			45.59	0.41	6.75		
			위사	0.28	S	21									
JL-4	병정		絹	평직 능직	경사	0.18	없음	66	2.36	0.07	52	52.5×148	43.4	5.64	27.34
					위사	0.21	없음	28							
JL-5	용도불 명		羅	四經 絞羅	경사	0.15	Z	101	3.74	0.322	55 이상		51.64	-0.28	26.8
					위사	0.29	없음	27							
JL-6	보공용 직물		紬	빙직	경사	0.21	없음	24	1.09	0.132	37.5	37.5×304	46.61	4.88	29.67
					위사	0.25	없음	22							
JL-7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25	없음	26	1.37	0.166	38	38×338	39.84	5.76	25.19
					위사	0.20	없음	19							
JL-8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21	없음	24	1.14	0.151	38	38×314	48.63	5.12	28.88
					위사	0.18	없음	21							
JL-9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23	없음	25	1.19	0.124	36.5	36.5×320	47.37	4.5	29.01
					위사	0.24	없음	21							
JL-10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16	없음	22	1.10	0.166	37.3	37.3×306	50.45	3.99	30.31
					위사	0.16	없음	20							
JL-11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17	없음	30	0.68	0.138	34.5	34.5×285.8	44.21	7.59	26.24
					위사	0.18	없음	44							
JL-12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17	없음	30	0.94	0.156	35.7	35.7×323	37.68	4.44	25.57
					위사	0.21	없음	32							
JL-13	보공용 직물		紬	평직	경사	0.16	없음	30	0.83	0.145	35.2	35.2×321	39.84	7.63	25.19
					위사	0.16	없음	36							

색솜누비장의)은 걸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처리하였으며, JL-2(분홍색솜누비장의)는 반대로 안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처리하여 마무리 하였다.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은 따로 시접처리를 하지 않고 실감, 솜, 교직, 안감의 4겹을 큰 시침질로 등성등성 고정시켰다.

4. 고름의 경우에는 JL-2(분홍색솜누비장의)와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은 홍실로 되어 있으나 JL-1(아청색솜누비장의)은 새 땀 상침으로 바느질 되어 있다. 고름의 넓이와 길이, 고름의 위치, 박유선의 방향도 세 섬 모두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안고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5. 밑단의 바느질법은 JL-1(아청색솜누비장의)은 걸감을 그대로 접어 올려 감침질로 처리하였으며, JL-2(분홍색솜누비장의)는 걸감과 동일한 원단으로 바이어스 처리하여 안감 쪽에서 공그르기로 고정시켰다. JL-3(진갈색솜누비장의)은 걸과 안감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단까지 맞추어서 홈질로 바느질하여 창구멍을 이용하여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6. 출토직물은 주로 견직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정련한 견사를 사용하여 직조하였다.
7. 장의의 걸감은 모두 견직물이 사용되었고, 안감으로는 삼베와 면과 견직물의 교직물 그리고 거들지에는 면직물이 사용되었다.
8. 4경교라에 문위사를 삽입하여 직조한 운문라는 조선시대 직물로는 드물게 발굴된 직물로서 라직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전의이씨 출토유물은 당시의 유물에서 조사된 특징들과 함께 다양한 구성법 및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6~17세기의 경상남도 지역의 장의의 형태와 직물의 특성을 제시하며 다른 유물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유물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건들바우박물관 (1991). *전주하씨 출토문헌과 복식조사 보고서*. 대구: 건들바우박물관 출판부.
-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 권영숙 (2000). "조선초·중기 여자상의제도." *전통복식 2*. 서울: 경춘사.
- 단국대민속박물관 (1988). *한국복식 제 6호*. 서울: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 문화재관리국 (1994). *복식보존처리보고서*.
- 박성실 (1994). *의식주 생활*. 서울: 군사편찬위원회.
- 박윤미 (1997). "佛腹藏 織物을 통하여 본 朝鮮時代의 직물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미, 황은경, 정복남 (2003). "宣寧 全義李氏 出土服飾의 세척방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6호*.
- 박필순 (2003). "여자 복에 관한 研究 -朝鮮時代 長衣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역사박물관 (2003). 서울: 趙徽集出土遺衣.
- 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부늬." 서울: 석주선 기념박물관.
-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전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경북: 안동대학교 박물관.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교향 내탄리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북: 안동대학교 박물관.
- 이주영 (2000). "조선시대 남자 장의(長衣)제도." *전통복식 2*. 서울: 경춘사.
- 조효숙 (2003). "동래정씨 흥곡공일가 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조사보고서*. 경기: 경기도박물관.
- 趙豊. *絲綢藝術史*. 浙江美術學院出版社.